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의 함의

경제안보 현안

한일·한미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경제안보 연구동향

「3자 협력(한·미·일)을 통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중국,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통제지표 비공개
- 미국, 반도체법 자금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재배정 검토
- 중국,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총량 통제·관리 방법’ 시행
- 미국, 「중국에서의 VEU 허가 취소」 사전 공개 열람문서 게시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이재원 선임전문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의 함의

01

1. 개요
2.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기업 개입
3. 국부펀드의 대안: 동맹 자본 기반의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4. 분석 및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황지현 전문관

한일·한미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13

1. 개요
2.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3. 한미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4.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김단비 전문관

「3자 협력(한·미·일)을 통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19

※ Villalobos, Fabian, et al., (2025.8.4.). "Securing South Korea's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Through Trilateral Cooperation." RAND Corporation

1. 한·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배경
2. 한·미·일 우선 협력대상 광물 검토
3. 한·미·일 3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비교
4. 3자 협력 기회 및 정책 제언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중국,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통제지표 비공개
- 미국, 반도체법 자금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재배정 검토
- 중국,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총량 통제·관리 방법' 시행
- 미국, 「중국에서의 VEU 허가 취소」 사전 공개 열람문서 게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의 함의

이재원 선임전문관

요약

- 동 보고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기업 개입 사례 및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관련 내용을 경제안보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조명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2025년 8월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 칼럼은 미국에서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확대, 즉 미국식 국가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기업의 경영 통제권을 확보해가는 상황

날짜	정부 기관	개입 대상	요지
6월 13일	백악관	US Steel	황금주 확보
7월 10일	국방부	MP Materials	우선주 및 워런트 확보
7월 22일	백악관	일본의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결정권 요구
7월 30일	백악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결정권 요구
8월 11일	백악관	Nvidia, AMD	특정 칩의 대중 매출액 15% 공유
8월 12일	재무장관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금	국부펀드 언급
8월 22일	상무부, 국방부	Intel	보통주 9.9% 인수
8월 26일	상무장관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금	국가·경제안보기금 언급

- 과거 미국 정부의 기업 개입은 금융 위기 방지를 위한 일시적 구제 조치였으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은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변모
 - 현재의 기업 개입은 안보적 중요성이 큰 철강, 핵심광물, 반도체 등 전략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한 부국강병의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등장
 - 또한 미국 기업 인수 허가 과정에서 황금주라는 기업 경영 통제권을 확보하거나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과정에서 해당 매출액 일부를 공유받는 등 미국의 거래주의적 정책 기조가 연이어서 발현
-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동맹의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여 미국의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동맹과의 거래 및 협상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을 시사
 -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 국부펀드 설립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의회 승인 등 법적 제약 및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고안

- 동맹의 투자금을 활용하여 국가·경제안보기금을 고안하겠다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에 전통적 안보 영역을 넘어서서 경제 영역에서도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관련 발언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기업 활동을 통제하는 미국식 국가자본주의가 등장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재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실행방안을 제시**
 -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월 7일 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를 제시하며 관세와 동맹국의 투자금을 활용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고 WTO 체제 이후의 소위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를 언급한 바, 이는 세계 무역 질서가 미국식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하여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다만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국식 국가자본주의 등장을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 산업·기술 정책을 경제안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계속 주시할 필요성 다대**

1. 개요

- **2025년 8월 11일 미국 경제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로의 행진(The U.S. Marches Toward State Capitalism With American Characteristics)”이라는 제하의 전문가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모방하면서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확대해 간다고 지적**
 - 주요 내용으로는 트럼프 정책이 중국의 민간 기업 통제 방식과 유사하다고 비판하고 민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행태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동맹의 투자금 약속 문제 등을 지적
 - 또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기존의 시장 주도 경제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통제 수단이 악용되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
-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희토류,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관련 민간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더 나아가 방산 및 조선업에 대한 지분 확보 가능성도 시사**
 - 2025년 7월 10일 미 국방부는 미국 희토류 광산업체 MP머티리얼즈(MP Materials)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하였으며, 8월 22일 미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의 지분 10%를 확보(Reuters 2025.7.10.; NYT 2025.8.22.)

- 2025년 7월 27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여타 반도체 기업의 지분 확보 가능성은 배제하면서도, 조선업 등 미국이 재편하는 부문에서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Fox Business 2025.8.27.)
- 2025년 8월 26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의 매출 대부분이 미국 정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산기업에 대한 지분확보 가능성까지 거론(CNBC, 2025.8.26.)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부펀드 조성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고, 관련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자본을 활용한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가능성을 언급

- 2025년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자산 관리의 극대화 및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 등을 명분으로 국부펀드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6호에 서명(The White House, 2025.2.3.)
- 2025년 8월 26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로부터 받게될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 기금(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fund)’을 조성하여 미국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CNBC, 2025.8.26.)

■ 동 보고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전략적 기업 개입 사례 및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관련 내용을 경제안보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조명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 일지]

날짜	정부 기관	개입 대상	요지
6월 13일	백악관	US Steel	황금주* 확보
7월 10일	국방부	MP Materials	우선주 및 워런트 확보
7월 22일	백악관	일본의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결정권 요구
7월 30일	백악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결정권 요구
8월 11일	백악관	Nvidia, AMD	특정 칩의 대중 매출액 15% 공유
8월 12일	재무장관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금	국부펀드 언급
8월 22일	상무부, 국방부	Intel	보통주 9.9% 인수
8월 26일	상무장관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금	국가·경제안보기금 언급

* 황금주(golden share) : 지분율과 관계없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의사 결정에 거부권 행사 가능

자료: DeHaven(2025), CNBC(2026.8.26.)

2.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기업 개입

■ 미국 정부의 민간 기업 개입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이는 대기업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및 경기 침체 방지, 금융 시스템 붕괴 방지 등에 초점

- 1970년대 크라이슬러 구제 금융 : 1979년 파산 직전이던 크라이슬러(Chrysler)를 구제하기 위해 카터 행정부는 15억 달러 대출 보증을 제공(Seabury, 2024)
 - 당시 미 정부는 수백만 일자리 감소 가능성, 독일 및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크라이슬러를 직접 인수하는 대신 주식 매입권을 취득 후 1983년 매각(Harrell, 2025)
- 2008년 TARP 프로그램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 정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을 통해 GM 등 700여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분 (GM의 경우 60.8%)을 확보(Canis and Webel, 2014)
 - 다만 2008년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한다는 명분에 따라 기업 지분을 사들이면서도, 납세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정부는 가능한 빠르게 지분 매각을 시도
 - 또한 미 정부는 주택 담보대출 시장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관련 기업(Fannie Mae 및 Freddie Mac)의 우선주와 워런트를 80% 수준으로 확보하면서 국유화(Frame et. al, 2015)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첨단분야 주도를 목표로, 황금주 발행, 보조금의 지분 전환, 공급-수요 동시 투자, 매출 공유 등 다양한 수단을 신속하게 도입

- ※ 미국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과학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동맹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 역량 강화를 통제해왔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나타나며,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거래주의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
- 황금주 발행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일본제철에 의한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뒤집고, 황금주가 핵심인 ‘국가안보협정(National Security Agreement, NSA)’ 체결 및 준수를 조건으로 인수 허용
 - 황금주는 배당이나 일반적 의결권을 정부에 부여하지 않음에도, 미국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구체적으로, US스틸의 미국 내 제조시설 폐쇄 또는 유희화, 해외 일자리 이전, 무역 관련 중요 결정 등 핵심 경영 사안에 대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심사 기구인 CFIUS가 국가 안보 위협 시 해당 거래를 무산시키거나 특정 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형태의 통제 방식을 도입
 - 보조금의 지분 전환 :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의 지분 9.9%를 확보하였으며, 수동적 소유 지분으로 이사회 참여나 특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납세자 수익 환수를 목표로 하고 파운드리 사업 매각도 방지

- 미 정부는 인텔 지분 9.9% 확보를 위해 총 89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금은 이미 교부된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57억 달러와 국방부의 ‘시큐어 인클레이브(Secure Enclave)’ 프로그램 자금 32억 달러로 구성(Intel, 2025)
-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을 단순 비용으로 지출하는 대신 기업의 성과를 납세자의 이익으로 연결하고자 하며,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지분을 51% 미만으로 낮출 경우 정부가 5%의 지분을 낮은 가격(주당 20달러)에 추가 매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신주인수권(warrant) 조항을 포함시키고 미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 상 반도체 위탁생산인 파운드리 사업부 매각을 제한(Intel, 2025)
- 공급-수요 동시 투자 : 미 국방부는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네오디뮴(Nd) 및 프라세오디뮴(Pr)을 대상으로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생산 자금을 지원하는 공급 정책과 함께 구매 약속 등 시장을 창출하는 수요 정책도 보장하는 투자 계약 체결(Wu, 2025)
 - 국방부는 4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이라는 공급 측면의 지원을 통해 희토류 가공 및 영구자석 제조 시설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10년 간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자석 가격을 시장 가격 대비 약 2배인 1kg 당 110달러로 보장하는 가격 하한제를 약속하고 확대된 자석 제조량에 대해 100% 구매를 약속(offtake commitment)
 - 이와 관련 국방물자생산법 제3장은 미국 국방에 필수적인 물자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 기반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국방부에 위임)
- 매출 공유 : 백악관은 엔비디아(Nvidia)와 AMD가 특정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미 정부가 해당 매출의 15%를 받는데 합의했다고 발표(Financial Times, 2025.8.11.)
 - 통제대상인 H20 등 반도체 품목의 수출 허용을 조건으로 행정부가 기업의 수익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거래적 방식을 드러낸 사례로 지분확보나 황금주와는 다른 매출 공유라는 새로운 개입 형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가 아닌 특별세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
 - 백악관은 엔비디아식의 유사 정책이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거래형 규제에 대해 미국 법조계는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출세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간 기술에 대한 국가 안보 규제를 기업이 돈을 내고 해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 사례와 일각의 평가]

개입 형태	기업명	개입 날짜	명분	법적 근거	일부 평가 (미 CATO 연구소)
황금주 (golden share) 확보	US Steel	2025년 6월 13일	국가안보	행정명령 및 국가안보협의 (NSA)	영구적 통제권 확보, 부분적 국유화*
보조금-지분 전환 (보통주 9.9% 확보)	Intel	2025년 8월 22일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반도체과학법의 보조금, 국방부 자금	보조금의 '지분 전환', 부분적 국유화
공급-수요 동시 투자	MP Materials	2025년 7월 10일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국방물자생산법 제3장	전략적 개입, 부분적 국유화
매출의 15% 공유	Nvidia, AMD	2025년 8월 11일	국가안보 (대중국 칩 수출 허용)	미흡	특별세, 정부의 거래적 접근

자료: 저자 작성. 평가 내용은 DeHaven (2025.8.29.) 참고

* 다만 황금주의 경우 자본 투자없이 비경제적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을 국영화한 점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국유화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Danzman, 2025)

3. 국부펀드의 대안: 동맹 자본 기반의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초기 국부펀드 설립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외국 자본을 활용한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가능성까지 언급

- 본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석유 수출국(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및 대규모 무역 흑자국(싱가포르 등)에서 조성한 경우가 일반적이나, 미국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민간 투자 시장 보유 및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국부펀드 설립 여력 부재(Guardian, 2025.2.4.)
- 2025년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국제적 리더십을 증진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촉진, 미국 가정과 소기업 세금 부담 감소,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안보 구축을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White House, 2025.2.3.)
 - 동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국부펀드 설립 계획(자금 조달 방식, 투자 전략, 펀드 구조, 지배 구조, 법적 검토)을 수립·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국부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등 법적 제약이 따른다는 현실에 부딪힌 미국 정부가 동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분석(DeHaven, 2025)
 - 또한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부펀드의 운영이 어렵다는 상무부 내부의 결론도 보도된 상황(NYT, 2025.9.10.)

- 의회 승인없이 공식적인 국부펀드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대미 투자금을 기반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미국 인프라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CNBC, 2025.8.26.)
- 러트닉 장관은 이 기금이 미국인의 세금을 투입하는 국부펀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 수입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협상을 통해 확보한 투자 약속을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부연

[주요국 국부펀드 및 유사 기금 비교]

	설립/발표	재원	설립 목적	투자 성향	운영 방식
중동 (사우디 PIF, UAE ADIA 등)	사우디 PIF: 1971년 중동 ADIA: 1976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 수익	경제 다각화 및 탈석유 시대 대비, 자국 산업 육성	직접 투자 및 벤처 투자	정부 주도적, 전략적 투자
노르웨이 (GPFG)	1990년	석유 가스 등 에너 지 자원 수출 수익	미래 세대 자금 축적	높은 윤리적 투자 기준 준수, 장기적 분산 투자	높은 투명성, 국민적 감시
싱가포르 (GIC, Temasek)	Temasek: 1974년 GIC: 1981년	외환보유고, 정부 잉여금 등 비자원성 수익	국가 경쟁력 강화, 산업 다각화 및 장기적인 경제 성장	상업적 수익성 추구, 공격적인 M&A	상업적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
중국 (CIC)	2007년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용 및 수익률 제고	국가 전략에 부합 하는 장기 투자, 자 국 산업 안정화	정부 주도적, 전략적 운용
영국 (National Wealth Fund)	2025년 7월 7일	정부 보조금 및 공공 금융 수단	탄소 포집 등 친환경 및 첨단 기술 육성	국내 녹색 및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	정부 주도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하되, 민간 부문 참여 유도
미국(예상)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Fund)	2025년	동맹국의 대미 투자 자금	인프라 건설 등	특정 기업 지분 확보 및 인프라 직접 투자	미상

자료: 각국 공식 웹사이트 자료 및 관련 언론 보도 참고

■ 미국이 국부펀드의 임시적 대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고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금 운영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의 세부적 조율은 계속 이어질 전망

-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조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투자 패키지는 에너지 인프라 및 생산(LNG, 첨단연료, 전력망 현대화), 반도체 제조 및 연구, 핵심 광물 자원 채굴, 조선(상선 및 군함), 제약, 미국 국부펀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발표(The White House, 2025.7.22.)

- 다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프로젝트 선정 및 운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일본이 관세 인하(25%→15%)를 구매한 셈이라고 설명하고 이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The Japan Times, 2025.7.24.; Reuters 2025.8.26.)
- 반면 일본측은 대미 투자금이 대부분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한 출자, 융자, 보증 형태로 제공되고 일본 기업이 대미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 해석 차이를 두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Japan Today, 2025.8.26.)
- 2025년 9월 4일 양측은 각서(MOU)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장: 미 상무장관)의 추천에 따라 투자 대상을 최종 선정하도록 했으며, 일본은 자금 제공 거부권을 가지되 일본의 성실한 투자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미국이 합의된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日本經濟新聞, 2025.9.5.)
- 또한 핵심 투자 분야는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에 집중하고, 투자 수입은 초기 미국과 일본이 50:50으로 나누고, 원금 회수 시 미국 90%, 일본 10%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
- 한국은 미국의 관세 25% 부과 예고라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 조선업 부흥 구상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
 - 한국은 마스가 프로젝트인 조선업 전용 기금 1,500억 달러를 미국 내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등 미국 조선 산업 재건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범용 투자 패키지로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지원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
 - 2,000억 달러 투자는 대출과 보증 등 간접적 금융 지원으로 구성된 금융 패키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가 5% 미만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일종의 한도 설정 개념인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한꺼번에 총액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약정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자하는 방식으로 접근(연합인포맥스, 2025.7.31.)
 -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투자금의 운영과 수익 배분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 존재

4. 분석 및 시사점

- 과거 미국 정부의 기업 개입은 주로 금융 위기나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적 안정화 및 일시적 구제(bailout) 조치였으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은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변모

- 과거에는 주로 대출 보증이나 자금 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왔으나, 최근의 개입은 지분 확보가 그 자체로 중요 수단으로 작용
- 또한 현재의 기업 개입은 안보적 중요성이 큰 철강, 핵심광물, 반도체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한 부국강병의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등장
 - 일련의 조치들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습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시장의 방향성을 직접 설정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반영

[미국 정부의 기업 개입 성격의 변화]

시기	주요 사례	목적	개입 형태	주요 특징
1970년~2008년	Chrysler, GM 등	금융 위기 및 경제 시스템 붕괴 방지	대출 보증, 자금 지원, 지분은 부수적 수단	일시적이고 한정된 개입, 위기 해결 후 지분 매각
2025년	US Steel, MP Materials, Intel	미중 경쟁 하의 기술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	황금주, 지분 확보, 매출 공유 등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기조, 전략적 통제가 목적

자료: 저자 정리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 사례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통제하려는 방식이 지분 확보와 같은 자본을 통한 통제뿐만 아니라 황금주와 같이 자본 투자 없이도 비경제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

- 인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는 단순 산업 지원을 넘어서 민간 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해 온 미국이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국가 전략적 목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방증
- US스틸 인수에 대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협정(NSA)’의 일환으로 활용된 황금주는 정부가 기업의 소유 구조와 관계없이 경영의 핵심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주었으며, 이는 미국의 거래주의적 정책 기조가 연이어서 발현된 것으로 평가 가능

■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동맹의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여 미국의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동맹과의 거래 및 협상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을 시사

- 국가·경제안보펀드는 동맹의 경제 주권과 동맹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 펀드는 동맹국 간 안보-경제 연계(Nexus)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에 전통적 안보 영역을 넘어서서 경제 영역에서도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전통적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국제 무역 질서를 보장하는 공공재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대의 패권 전쟁은 경제 전쟁 및 시장 무기화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이근, 2025.3.4.)
- 현재 국가·경제안보펀드의 실제 조성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실제 조성 여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성 다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가능성 발언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기업 활동을 통제하는 미국식 국가자본주의가 등장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재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실행방안을 제시**

-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월 7일 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를 제시하며 관세와 동맹국의 투자금을 활용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고 WTO 체제 이후의 소위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를 언급한 바, 이는 세계 무역 질서가 미국식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하여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Greer, 2025.8.7.)
- 즉 미국식 국가자본주의의 부상은 최소 정부 개입을 표방하던 미국이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정부-기업 관계를 암시
 - 또한 안보의 영역이 경제적 수단으로 확장되는 상호의존의 무기화 담론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적용되면서 기업이 국가 간 경쟁의 도구로 활용될 우려

■ **다만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국식 국가자본주의 등장을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 산업·기술 정책을 경제안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계속 주시할 필요성 다대**

- 트럼프가 주도하는 국가 개입 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에 배치되며 과도한 시장 개입과 기업 경영권 확보 시도는 여전히 당내 전통 보수 세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므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 필요
-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고 전략 산업과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업 관계 및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 연합뉴스. (2025.7.31.). 2천억불 대미투자펀드는 ‘캐피탈콜’ ... “일 분석해 규모 확 줄였다”
- 이근. (2025.3.4.). 승부처는 군사력이 아닌 ‘미래 선도산업’ 경쟁력. 신동아.
- Canis, Bill and Baird Webel. (2024). The Role of TARP Assistance in the Restructuring of General Moto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NBC(2025.8.26.). Commerce Sec. Lutnick: Trump Pentagon is ‘thinking’ about stakes in defense contractors.
- Danzman, Sarah Bauerle. (2025.6.16.). Did Trump effectively nationalize US Steel with his ‘golden share’? New Atlanticist. Atlantic Council.
- DeHaven Tad. (2025.8.29.). Shakedowns and a Sovereign Wealth Fund. CATO Institute.
- Financial Times(2025.8.11.). Nvidia and AMD to pay 15% of China chip sale revenues to US government.
- Fox Business(2025.8.27.). Bessent says Trump exploring stakes in ‘other industries’ after Intel deal, rules out Nvidia.
- Frame, W. Scott, Andreas Fuster, Joseph Tracy and James Vickery. (2015). The Rescue of Fannie Mae and Freddie Mac.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
- Greer, Jamieson. (2025.8.7.). Trump’s Trade Representative: Why We Remade the Global Order. New York Times.
- Guardian. (2025.2.4.). What is a sovereign wealth fund and why is Trump creating one now?
- Harell, Peter E. (2025). The Legal Bases for Government Stakes in Private Firms. Lawfare.
- Intel. (2025). Intel and Trump Administration Reach Historic Agreement to Accelerate American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Leadership. Press Releases. Intel.
- NYT(2025.8.22.). Intel Agrees to Sell U.S. a 10% Stake in Its Business.
- NYT(2025.9.10.). How Lutnick is Using Government Power to Pressure Private Companies.
- Reuters(2025.7.10.). MP Materials seals mega rare-earths deal with US to break China’s grip.
- Reuters. (2025.8.26.). Lutnick says update on Japan’s \$550 billion US investment coming this week.
- Seabury, Chris. (2024). The Chrysler Bailout of 1979 : A Retrospective. Investopedia.
- The Japan Times(2025.7.24.). Big unanswered questions follow Japan’s big, beautiful deal with the U.S.
- The White House(2025.2.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Orders Plan for a United States Sovereign Wealth Fund.
- The White House(2025.2.3.). A Plan for Establishing a United States Sovereign Wealth Fund.
- The White House(2025.7.2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Unprecedented U.S.-Japan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 IP, Greg (2025.8.11.). The U.S. Marches Toward State Capitalism With American Characteristics. Wall Street Journal.
- Wu, Alice. (2025). UnPack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MP Materials Critical Minerals Partnership.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 日本経済新聞. (2025.9.5.). 日米関税合意と対米投資に関する共同声明・覚書の要旨.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547T0V00C25A9000000/>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황지현 전문관

1. 개요

■ 우리 정상은 한일 정상회담(2025.8.23., 도쿄) 및 한미 정상회담(2025.8.25., 워싱턴)을 연이어 가지며 한일·한미 협력 강화 도모

- 우리 정상은 취임 후 2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 ▲미래산업 분야 및 공동 과제 대응 협력 ▲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등 논의

* 첫 한일 정상회담은 2025년 G7 정상회의(캐나다 카나스키스, 6.16.~17.) 계기 개최 / 동 회담 시 ▲산업, 공급망, 문화, 인적 교류 등 협력 ▲서틀 외교 재개 의지 등 확인

- 이후 미국으로 순차 방문하여 한미 新정부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한미 동맹 현대화 ▲신규 협력 분야 개척 등 논의

-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다수의 계약 및 MOU 체결

- 본 보고서에서는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주요 결과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 정상 간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 역내 전략 환경 변화 및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소통 강화 필요성 확인

- 양 정상은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

■ 경제·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양국 간 상호호혜적 경제·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사회과제 공동 대응에 합의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의 유망 협력 분야인 수소 및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

■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에 합의
 - 한일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 심화 도모

3. 한미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 양국 정상 차원에서 경제협력 의지 천명

- 양국 정상 간 경제협력 의지를 결집하고 한미 무역 합의* 사항을 정상 차원에서 논의
 - 한미 무역 합의 사항을 정상 차원에서 공고화하고, 구체 사안 논의를 통해 잔존하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

* 양국은 지난 7.30일 ▲미국의 관세 인하(상호관세율 25%→15%, 자동차 관세 25%→15%, 반도체·의약품 최대국 대우 등) ▲한국의 對美 협력 사업 확대(총 3,500억 불 규모 금융 패키지 조성) 등을 포함한 관세 협상을 타결 / 現 실무 협의 중

■ 조선, 원자력 등 신규 협력 분야 개척

- 한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한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의지 상호 확인
 - ▲한국의 미국 내 선박 건조 ▲미국의 한국산 선박 구매 등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 공감

-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관련 정상 간 논의

- 한미 간 원자력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투자 확대에 대한 논의 등 진행

※ 한국은 한미 무역 합의의 금융 패키지 內 ‘MASGA 프로젝트’를 제안, 총 1,500억 불 규모 조선 협력 패키지를 조성하고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인력 양성,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투자 예정 / 또한, 4년간 1,000억 불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합의

■ 첨단산업·제조업 파트너십으로의 발전

-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첨단산업, 주력 제조업 등 주요 산업별 경제협력 방안 논의

-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 ▲LNG 분야 계약 2건 및 ▲조선 ▲원자력 ▲항공 ▲핵심광물 분야 MOU 총 9건을 체결해 한미 간 제조업 협력 강화

※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등 무역 합의의 이행 및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기업·기관 차원의 협업을 본격화·공식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 체결한 계약·MOU 주요 내용]

	분야	우리측	미국측	주요 내용
계약	LNG (2건)	한국가스공사	Trafigura	-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 톤 규모 중장기 LNG 도입 계약 체결
			Total Energies	
MOU	조선 (2건)	HD현대, 한국산업은행	Cerberus Capital	- 美 조선소 현대화 등 위한 수십억 불 규모 공동 투자 펀드 조성
		삼성중공업	Vigor Marine Group	- 美 해군 지원함 MRO,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파트너십 구축
	원자력 (4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X-energy, AWS	-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확대 협력
		두산에너지빌리티	Fermi America	-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 관련 대형 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
		한국수력원자력, 삼성물산	Fermi America	-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 관련 원전·화력·태양광 통합 운영 협력
		한국수력원자력	Centrus	- Centrus 우라늄 농축설비 구축 투자 공동 참여
	항공 (2건)	대한항공	Boeing	- Boeing으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362억 불 규모) 도입
			GE Aerospace	- GE Aerospace 엔진 구매 및 정비 위탁
핵심광물 (1건)	고려아연	Lockheed Martin	- 2028년부터 對美 게르마늄 장기 공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5.8.26.)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4.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우리 정상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및 한미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져 우리 주도의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의지 강조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下, 한일 간 전략적 소통 강화
 - 한일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협력 공고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도모하고,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 대응 지속 모색
-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안보 소통 확대 및 미래지향적 공동 이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금번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소, AI 등 주요 산업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

- 양국 NSC, 외교부, 산업부 간 현재 운영 중인 각급의 경제안보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화
- 양국 수소 분야 협력은 한-일 수소협력 대화* 등 정부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바, 이를 민간부문의 실질 협력으로 확대하고, AI, 반도체 등 여타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 모색

* 2024.5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신설되어 2024.6월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 개최 / 2025.3월 제2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해 ▲청정수소 공급망 개발 ▲탄소집약도·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워킹그룹별 협력 논의

■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무역 합의(7.30) 후속 논의, 신규 협력 분야 개척 등 양국 간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개별 산업 분야 계약 및 MOU 체결 등 전략적 협력 본격 시동

-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통해 對美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였으며, 향후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사안을 구체화·명문화할 필요

※ EU 및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 및 對美 투자 확대 등에 대한 구체 합의 사항을 문서화(EU - 공동성명(8.22.), 일본 - 공동성명·MOU 및 백악관 행정명령(9.4.))

- 양국은 조선, 원자력 등으로 산업 협력 기반을 넓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괄적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 도모
- 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화하기 위해 전략산업,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 다수의 계약 및 MOU 체결

※ LNG 분야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미 텍사스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신규 도입 계약 체결을 통해 도입선 다변화 / 핵심광물 분야에서 고려아연은 중국 외 지역에서 채굴, 제련한 게르마늄을 록히드마틴에 장기 공급하는 MOU 체결 등

- 한편, 미국 내 조선업 관련 법·제도적 제약 완화, 상호 인력 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잔여 과제 상존 /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원전 연료 확보, 핵연료주기 등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5.6.9.). 한국·일본 정상 통화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uUbe1a63>.
- ———. (2025.6.19.). 순방 2일 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qKPMYbUd>.
- ———. (2025.8.23.).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t72jcRY5>.
- ———. (2025.8.24.). 순방 2일 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v08Rsgxe>.
- ———. (2025.8.25.). 한미 정상회담 일정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qxehrAxX>.
- ———. (2025.8.26.).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jc24EP1N>.
- ———. (2025.8.26.). 한미 정상회담 관련 3실장(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bQUkg2PC>.
- ———. (2025.8.26.). 한미동맹으로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gu4F4zp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8.23.). 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051>.
- 산업통상자원부. (2024.6.14.). 한·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보도자료.
- ———. (2025.3.26.). 한·일간 수소경제 공조 강화한다. 보도자료.
- ———. (2025.7.30.).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보도참고자료.
- ———. (2025.8.26.).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 마련. 보도참고자료.
- 최용호. (2025.8.14.).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경제안보 Review. (25-15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한국가스공사. (2025.8.26.). 가스공사, 연 330만 톤 규모 미국산 LNG 기반 물량 확보. 보도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2025.6.19.). 60년간 韓 경제 발전으로 이끈 한·일 파트너십, 반도체·AI 협력으로 ‘새로운 60년’ 열어야. 보도자료.
- 김동규. (2025.8.26.). [한미정상회담] 가스공사, 10년간 연 330t 美 LNG 도입…도입선 다변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6054000003>.
- 오수현·김상준. (2025.8.31.). ‘개점휴업’ 한미 원자력고위급회담 재가동되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07130>.
- 오예진. (2025.8.26.). [한미정상회담] 고려아연, 록히드마틴과 핵심 전략 광물 공급 MOU.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6034400003>.
- 이왕휘. (2025.6.18.). 한일 경제협력, 수소 산업이 이끌어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50617075021334>.
- White House. (2025.8.21.). Joint Statement on a United States-European Union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 ———. (2025.9.4.).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Executive Orders.
- 일본 경제산업성. (2025.9.5.). 武藤経済産業大臣の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

저자 소개

황지현 | jhhwang24@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경제안보 Review 25-9호, 2025)”,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경제안보 Review 24-18호, 2024)”,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KDI, 2022)”가 있다.

「3자 협력(한·미·일)을 통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김단비 전문관

※ 원문 : Villalobos, Fabian, et al., (2025.8.4.). “Securing South Korea’s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Through Trilateral Cooperation.” RAND Corporation

1. 한·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배경

- 한·미·일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의 對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3자 관계 구축을 모색중
 -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과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정책은 3국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주요 불안 요인으로 작용
 - 2019년 이후 미·중 경쟁 심화와 함께 중국의 미국을 겨냥한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희토류·갈륨·게르마늄·흑연 등)가 점차 확대 및 강화되며, 동 조치의 파급 효과로 한국과 일본 등의 공급망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추세
 -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3국의 협력은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주요 협력 틀이자, 기존 공급망 취약성 보완을 위한 핵심 수단
 -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간 경제안보 협력을 핵심 협력 과제로 식별하였으며, 2024년 6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2025년 4월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2. 한·미·일 우선 협력대상 광물 검토

- 한국이 핵심광물로 지정한 33종의 광물중 공급망 교란 가능성과 對중국 무역 노출 순위를 고려하여 우선 협력 대상 광물(코발트, 갈륨, 몰리브덴, 텅스텐) 식별
 - (코발트) 코발트의 주요 생산지는 콩고민주공화국(DRC)으로 전세계 채굴량의 74%를 차지하며, DRC 내 다수의 광산은 중국 기업이 소유중
 - 중국 기업은 글로벌 코발트 정제의 78.5%를 점유하고 있어, 코발트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

- **(갈륨)** 2023년 기준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와 분리 공정의 89%를 점유하며 공급망 내 압도적인 지위 보유
 - 갈륨은 주로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추출되며 일부는 아연 제련 과정에서도 생산되나, 갈륨 분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중국 이외 기업들의 투자는 제한적
- **(몰리브덴)** 다른 핵심 광물 사례와 비교할 때 공급이 상대적으로 다각화되어 있으나, 중국이 2023년 세계 몰리브덴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며 선두를 유지중
- **(텅스텐)** 중국과 러시아 등 고위험 국가가 전 세계 텅스텐 합금철의 대부분을 생산중
 - 글로벌 텅스텐의 주요 매장지는 중국 52%, 호주 13%, 러시아 9%로 추정되며, 2023년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1%를 중국이 차지
 - 현재 3국 내 텅스텐 채굴 및 가공 인프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3국 모두 사실상 특정국(중국,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한·미·일 우선 협력대상 광물 개요]

구분	코발트	갈륨	몰리브덴	텅스텐
	핵심 산업		방산	
주요 용도	• 리튬이온배터리, 희토류 영구자석, 제트엔진 초합금	• 반도체, 센서, 항공전자, 통신	• 철강, 공중·해양·지상 등 방산 분야 전반에 사용	• 장갑관통탄, 미사일 부품, 전차 장갑, 함정 선체·추진계 등 방산 분야 전반
주요 수요	•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 중심 수요	• 반도체, LED	• 철강·재생에너지·항공우주	• 방산, 로봇
시장 구조	• <u>DRC 내 중국 기업의 지배력 高</u> • <u>코발트 정제분야의 중국 기업 점유율 高</u>	• <u>전체 갈륨 생산의 중국 지배력 高(98%)</u>	• <u>일본은 농축·가공재 중국 의존 高(70%)</u> • 미국은 자국 내 몰리브덴 광산 및 정제시설 보유	• 텅스텐 소재에서 3국의 대중 수입 의존 高 <u>삼자 내 광산·가공 인프라가 미미</u>
지정학 동향	• 비중국 정제량은 글로벌 수요의 25% 충족 전망	• 2024년 12월 중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의 대미 수출 제한 시행	• 2025년 2월 중국은 일부 몰리브덴 화합물에 수출허가제 도입	• 2024년 12월 중국은 텅스텐 포함 주요 원자재 수출에 신규제한 조치 부과

3. 한·미·일 3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비교

- 3국은 경제안보에 대한 상이한 접근방식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중임으로, 이를 고려한 상호보완적 협력 구상이 필요
- **(한국)** 한국은 포괄적 법률(소부장 특별조치법,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을 기반으로 위험 평가·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

- 기재부, 산업부(IPEF), 외교부(MSP) 등 부처별 역할이 명확히 배분되어 있으며, MSP 의장국으로서 동맹·파트너 협력에 강점을 가지나 방위산업의 공급망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
- 기존 광물 관련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배권 다각화 정책 비중은 낮은 편으로, 이는 핵심광물의 채굴·가공·정제 단계에서 한국기업이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
- **(미국)** 풍부한 자원과 채굴·가공·정제 전반의 역량을 기반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가장 유리한 위치
 - 정책적으로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무역 장벽 활용, 동맹 협력에서 높은 장점을 보유함. 그러나 법률 기반이 부족해 행정명령 중심으로 추진되며, 이로 인해 권한·자원 배분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위험 관리 부문이 취약
- **(일본)**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과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중
 - JOGMEC은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기관으로, 일본의 경제 안보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은 중국의 과잉 공급과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이에, 정책 목적이 신규 공급·수요 창출, 파트너 협력, 기술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방위산업 분야의 정책은 제한적
- **(역외파트너)** 한·미·일은 인도·몽골과 같은 역외 파트너와 협력해 광물 자원의 채굴, 정제, 가공 역량을 보완할 필요
 - 모든 광물이 3국 역내에 있지 않음으로, 인도·몽골 등 광물자원 보유국을 역외 파트너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역외 파트너 검토시 탐사·자원평가, 인프라(철도·항만·제련)·규제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

[한·미·일 3국의 정책 도구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강점	• 법·전략 포괄적 정비,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 빠른 범정부 조정 • 대외협력(MSP 의장) 활용	• 폭넓은 재정·무역수단 보유, 방산 기반 직접 지원 • 거대 내수로 리쇼어링 유도 • R&D(국립연·대학) 대체·효율 혁신	• JOGMEC 기반의 해외 프로젝트 실행력 • 기술·소재(전구체 화학) 경쟁력 • 재활용·대체기술 중시
약점	• 채굴·정련 등 상류 역량 제한 • 방산 공급망 요건 반영 약함 • 특정국 의존도 여전	• 포괄 법제 미비(EO 의존) → 일관성·지속성 리스크 • 다자 틀(MSP) 프로젝트 전환 제한 • 규제 불확실성(관세·규정 변동성)	• 채굴·정련 상류 지분/지배 약함 • 방산 공급망 초점 낮음 • 중국 가공재 의존 구간 존재

4. 3자 협력 기회 및 정책 제언

■ (협력 기회) 한·미·일은 부문별 무역·투자 협정(sectoral agreement),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점진적 3자 협력 모색 가능

- (무역·투자 협정) 3국은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해 부문별 무역·투자 협정, 구매자 클럽 형태의 협력 고려 가능
 - 초기에는 양자 협력으로 시작하여 3국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으며, MSP, IPEF, Chip 4, G7 등 대체 플랫폼도 활용도 고려 가능
- (정보공유·위기 관리 협력) 3국 간 위기관리와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강화가 필요
 - 현재 한국과 미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
 -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회원국 확대와 실질적 운영 강화가 필요
 - 공동 비축 협력, 광물 스왑 협정, 경제적 강압조치에 처한 기업 지원 패키지 등 공동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도 고려
- (기타 방안) 고품질 광물에 대한 세금인센티브, 인증요건 충족 자원에 대한 수입 할당량 설정,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3자 협력의 예상 장벽) ▲미국 무역정책, ▲한·일 역사·여론 요인, ▲한일 동일 업종 경쟁, ▲3국간 방산 공급망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은 협력의 장벽으로 작용 가능
 -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 협력의 점진적 확대, 다자 플랫폼의 활용, 신뢰 기반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

■ (정책 제언) 한·미·일은 상이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중인바, 자국 정책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3국 협력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

- (한국) 한국은 일본 및 미국과 협력을 추진할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외교 채널을 강화해야 하며, MSP 의장국으로서 단순한 프로젝트 조율에서 벗어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무역정책, 공동 R&D, 위기대응체계 등)을 제시할 필요
 - 더불어 방위산업 기반을 경제안보전략에 포함해 국방과 경제를 연계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
- (일본) 3국 협력 추진시 JOGMEC을 활용한 한·미 투자 협력 지원 방안 모색 가능
 - 정책분야에서는 방위·항공우주 부문의 공급망 확보에는 소극적임으로, 경제안보의 범위를 확대해 국방 수요까지 포괄할 필요
- (미국) 중국의 산업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무역정책 추진에 있어서 파트너국과의 정책 조율을 확대하고, 구매자 클럽과 같은 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정책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법제화 및 전문기관 경험을 참고해 정책 수단을 보완할 필요

저자 소개

김단비 |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8.20.~2025.9.3.)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中 정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통제지표 비공개 통지(財聯社, 8.15)

- (주요 내용) 산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2016년 이후 정례적으로 공개 발표해오던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통제지표(쿼터)를 비공개로 전환
 -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2025년 1차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할당량을 비공개로 중국희토그룹과 북방희토에 배분*

* 중국은 매년 2회('23년은 3회) 연간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할당량을 관련 기업에게 통보

● (평가) 中 정부의 희토류 관련 통계 지표의 비공개 전환 지속 전망

- 中 정부는 희토류를 대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바, 관련 정보의 비공개 전환도 해당 기조의 일환으로 관찰
 - * 관련하여 최근 파이낸셜타임즈는 中 정부가 협상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비축을 제한을 피하며, 단기 수요 물량만을 수출 허가하고 있다고 보도(FT, 8.15)
- 희토류 공급량의 비공개 전환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토류 수급 예측 등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 전망

■ 美 행정부, 반도체법 자금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재배정 검토(Reuters, 8.21)

※ 원문 : Trump weighs using \$2billion in CHIPS Act funding for critical minerals, sources say

-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과학법에 배정된 자금 중 약 20억불(약 2조 8천억원)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재배정(reallocate)하는 방안 검토
 - (평가) 미 행정부의 핵심광물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논의 확대 전망
 - 美 국방부가 희토류 기업(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 투자를 발표한(8.11) 이후, 핵심광물 관련 행정부 내 체계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논의 확대
 - 상무부가 집행하는 반도체법 예산 활용시 미 행정부 내 핵심광물 관련 자금 조달 결정에 대한 Lutnick 상무장관의 권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 ※ 동 예산(527억달러 규모) 활용시 의회 절차를 통한 신규 예산 배분 절차 생략 가능

■ 中 정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총량 통제·관리 방법’시행(8.22)

- (주요 내용) ▲채굴·제련·분리 집행상황 보고 의무 강화, ▲희토류 제품의 추적 관리 강화
 - (보고 의무) ▲희토류 생산기업은 소재지 현급 정부에 월별, 연도별 집행상황 즉시 보고
▲현급·성급 정부는 상급기관에 종합 현황 보고
 - (제품 추적 관리) 희토류 생산기업은 매월 10일 이전 전월 희토류 제품 유통 정보를 정부가 구축한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시스템’에 입력
- (평가) 희토류 산업 전반(생산·공급·유통)에 대한 정부 주도 관리 체계 정비
 - 희토류 추적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공급 관리의 중앙집권화 기반 마련
 - 中 정부의 통제 체계 강화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하는 희토류 제품 수급의 불확실성(정치적 목적의 수출통제 등) 지속 전망

■ 美 정부, 「중국에서의 VEU 허가 취소*」 사전 공개 열람문서 게시(8.29)

* Revocation of Validated End-User Authoriz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주요 내용) 연방관보 게재일(9.2일)로부터 120일 후 중국 소재 SK하이닉스, 삼성, 인텔(SK하이닉스 인수) 반도체 생산기지를 VEU(Validated End User)* 허가 대상에서 제외 계획
 - *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 승인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품목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 중국내 반도체 생산 장비 도입시 미 정부의 건별 심사 필요
- (평가) 중국내 첨단반도체 생산 관련 우리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확대 전망
 - 설비 개선 등 중국 내 신규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전망
 - 일각에서는 첨단반도체 공정의 설비 투자제약에 따라, 우리기업과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CXMT)과의 기술격차 축소 가능성 제기(FT, 9.1)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7.26.	[AI] 국무원, <‘인공지능+’ 행동 심화 시행 의견> 발표 : 과학기술, 산업발전, 소비촉진, 거버넌스 등 6대 중점 분야 중심 3단계 발전 목표 제시
	8.15.	[희토류] 2025년 1차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통제지표(쿼터) 비공개 통지
	8.20.	[희토류] 7월 희토류 자석 수출량, 5,577톤으로 6월 대비 약 75% 증가
	8.22.	[희토류] 산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자연자원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총량 통제·관리 방법’ 공개 : 수입 광석에 대한 관리·통제 포함 등 희토류 공급측 통제 강화
	8.27.	[서비스교역] 상무부, 서비스교역/소비 확대 계획 발표
	8.29.	[관세] 상무부, 韓·美·日·EU·태국산 페놀 반덤핑관세 5년 연장
미국	8.13.	[핵심광물] 에너지부, 채굴·가공·제조 등 핵심광물 공급망 주요 단계의 기술 발전 및 확장을 위해 총 10억 불 규모 자금지원 기회 공고 계획 발표
	8.15.	[관세] Jared Golden(민주/메인) 및 Greg Steube(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 「안전 무역 법안(Secure Trade Act)」 발의 : (주요 내용) ▲모든 수입품 대상 10% 기본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 중 非전략상품 대상 35% 관세 부과 및 전략상품 대상 100% 관세 부과 ▲우려국가 연관 투자 방지 관련 美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권한 확대
	8.15.	[미중관계] 하원 중국특위, 미중 무역합의 2단계 추진 시 필수 포함 요소 및 포함 불가 요소 제안 : ▲(필수 포함 요소) 무역합의 1단계 이행, 中 보조금·과잉생산 중단, 對中 무역적자 해소 등 ▲(포함 불가 요소) AI용 첨단반도체 구매 허용, 中 국가안보 관련 entity list 상 中 기관 해제 등
	8.19	[관세] Bessent 재무장관, 인도에 대한 2차 관세 부과 필요성 강조
	8.19.	[수출통제] Trump 대통령, 이종용도 수출 허가 신청 관련 상무부의 의회 앞 연례 보고 의무화 법안* 서명 * Maintaining American Superiority by Improving Export Control Transparency Act(H.R. 1316)
	8.19.	[농업] 미국대두협회(ASA), Trump 대통령에 중국과 구매 협정 체결 촉구 :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 확대로 美 농업인들에 수십억 달러 손실 초래 우려
	8.19.	[노동] 국토안보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수입 제한 품목에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홍대추를 최우선순위 품목으로 추가
	8.21.	[협정] Trump 대통령, 美-EU 무역협정 관련 공동성명 발표 : (주요 내용) ▲EU,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광범위한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특혜적 시장 접근 제공 ▲미국, EU 원산지 상품에 대해 MFN 관세율 또는 15%(MFN 관세율+상호관세율) 중 높은 관세율 적용 등
	8.22.	[금리] Powell 연준의장,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8.22.	[반도체] Trump 대통령, 美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인수 발표
	8.22.	[반도체] 하원 Raja Krishnamoorthi 중국 특위 간사(민주/일리노이) 및 Ami Bera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민주/캘리포니아), 중국 공산당 첨단반도체 금지법 발의 : 중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 시 의회 및 행정부 모두의 승인 의무 부여

국가	일자	내용
미국	8.25.	[핵심광물] 내무부, 2025년 핵심광물 잠정 목록 발표 : 총 54종 광물 자원 선정 및 30일간 서면 의견 수렴 예정
	8.25.	[반도체] 하원 Moolenaar 중국특위 위원장, 對中 첨단 AI 칩 수출통제 강화 촉구 서한 발송
	8.25.	[디지털] Trump 대통령,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 위협
	8.26.	[투자] Lutnick 상무부 장관, 금주 후반 일미 투자 관련 내용 발표 예정
	8.27.	[관세] 인도산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 개시 * 국별 관세 25% +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한 징벌적 관세 25%
	8.27.	[플랫폼]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韓 플랫폼경쟁촉진법 관련 우려 표명
	8.29.	[반도체] 정부, 「중국에서의 VEU 허가 취소*」 사전 공개 열람문서 게시 : 연방관보 게재일(9.2.)로부터 120일 후 인텔, 삼성, SK하이닉스를 VEU 허가 대상에서 제외 계획 * Revocation of Validated End-User Authoriz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8.29.	[정상회담] 국무부, 美-아르멘-아제르 정상회담(8.8.) 계기 당사국 정상 서명 문건 5건* 대외 공개 * ▲아제르-아르멘 정상 공동 선언 1건 ▲美-아제르 양해각서 1건 ▲美-아르멘 양해각서 3건
	8.29.	[관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Trump 대통령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 Trump 대통령의 관세 효력 확정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8.29.	[관세] 전미자동차노조(UAW), 중대형 트럭 수입 관세 인상 촉구
일본	9.2.	[제재] 행정부, 이란 석유 밀매 네트워크 제재 발표
	8.20.	[반덤핑] 정부, 비스페놀A 및 탄산이칼륨 관련 반덤핑 관세 과세 관련 조사 개시
	8.21.	[자동차] 자동차 업계, 美 수출가격 인상 : 관세 비용 美 소비자에게 전가 시작
EU	8.29.	[정상회담] 일본-인도 정상회담 개최 :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개정 및 경제 안전보장 이니셔티브 설립 등
	8.21.	[협정] 집행위, “미국-EU 간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무역협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주요 내용) ▲EU측 시장개방 ▲미측 對 EU 관세율 명확화 등
	8.26.	[디지털] 집행위, 美 관세 위협에 대해 유럽 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EU 집행위와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라고 대응
캐나다	8.28.	[관세] 집행위, 대미 관세 인하를 위한 이행 법안(①대미 공산품 관세 철폐, 미국산 및 비민감 농산물에 대한 특혜 시장 접근 제공 ②랍스터 무관세 혜택 연장) 제안
	8.21.	[배터리] 폭스바겐 자회사 PowerCo, 캐나다 온타리오주 세인트 토마스 EV 배터리 공장* 건설 계약 2건(▲구조용 철강 공사 ▲기초공사) 체결 * 캐나다 최대 규모의 EV 생산시설 / 2027년 가동 목표
	8.22.	[관세] Carney 총리, 대미 보복관세 일부 철회 발표 : 2025.9.1일부터 USMCA 규정을 따르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캐나다	8.26.	[조선] 공공서비스·조달부, 해군 차기 잠수함 사업 예비입찰후보(shortlist) 공식 발표 : 독일 Thyssenkrupp사 및 한화오션 선정

국가	일자	내용
독일	8.26.	[원자재] 독일-캐나다, 원자재 협정 체결
스위스	8.28.	[우크라] 연방경제청, 스위스 기업 참여 우크라이나 재건 12개 프로젝트 발표
핀란드	8.13.	[국방] 핀란드-미국 방위협력협정(DCA) 이행 협정 체결
튀르키예	8.30.	[반덤핑] 무역부, 한국산 평판압연(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멕시코	8.27.	[관세]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앞두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 검토중
브라질	8.13.	[관세] Lula 대통령, 美 관세 부과 피해기업 지원책 발표 : 300억 헤알(약 55억 불) 규모 긴급 금융 지원
칠레	8.13.	[협정] 상원, 칠-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승인
호주	8.28.	[관세] 정부, 500여 개 품목 대상 불필요 관세 철폐 계획 발표
베트남	8.18.	[데이터센터] 베트남 제1호 국가 데이터센터 개소
	8.19.	[인프라] 베트남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250건 동시 준공 및 착공식 개최 : 총 투자 규모 1,280조 동(약 486억 2천만 불)
	8.20.	[석유화학] 룡선 석유화학유한책임회사(LSP), 룡선 석유화학단지 운영 공식 재개
	8.26.	[금] 정부, 골드바 생산에 대한 국가 독점 제도 공식 폐지
	8.27.	[팅스텐] Reuters, 베트남 텅스텐 광산 중국측 인수 추진 관련 보도
인도	8.8.	[철강] 철강부, 국내 철강 생산업체의 원자재 수급 차질 완화를 위해 외국산 철강 202건 대상 인도표준국(BIS) 품질 인증 의무 면제 시행명령 발표
	8.19.	[관세] 정부, 수입 면화 관세 일시 면제(~9.30.) : 美 50% 관세를 대비해 의류업계 원가 부담 경감 조치
	8.29.	[관세] 정부, 수입 면화 관세 면제 기한 연말로 연장
	9.1.	[정상회의] Modi 총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8.27.	[리튬] 정부, 광물 자원 부문 개발 계획 승인 : 우크라 중부 도브라 광산 리튬 채굴권에 대한 입찰 계획 포함
인도네시아	8.25.	[광물] Reuters, 희토류 원소 및 방사성 물질 등 핵심전략 광물산업 개발 전담 기관 신설 보도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8.21.	[풍력] 상무부, 풍력 터빈 및 관련 부품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8.13.~) 발표
	8.21.	[석유] 재무부 및 국무부, 이란 석유 네트워크 제재 발표
중국	8.25.	[원자력] SCMP, 中 원자력 발전량이 2030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中 2022년 이후 매년 10곳씩 신규 원자로 건설 승인 중
네덜란드	8.28.	[가스] 네덜란드-독일 간 북해 지역 가스 공동개발 양자 협정 체결 : 네덜란드 석유·가스 탐사·생산 기업 one-dyas社 개발 예정
베트남	8.19.	[수력] 화빙 수력발전소 확장사업 1호기 발전 개시
	8.22.	[원자력] 정부,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 이행계획 결의안 발표 : (주요 내용) 닌투언 1·2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각 부처, 기관 및 지방 성·시에 대한 10가지 특정 임무 제시
인도네시아	8.15.	[가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및 수마트라 지역 천연가스 공급 차질 발생 : 가스전의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으로 물량 확보에 문제 발생 / 세라믹, 유리산업 등 일부 공장 생산 중단
칠레	8.6.	[원자력] 상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한 원전 관련 논의 재개
말레이시아	8.25.	[재생에너지] BERNAMA, 에너지전환수자원부(PETRA), 2050년까지 국가 전력 공급에 재생에너지 비중 70%로 확대 계획 보도 :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도입 추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25-7호 (2025.4.11.)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25-9호 (2025.5.09.)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	황지현
	현안	미국 우주 기술보호협정(TSA) 체결 동향	김수연
	연구동향	「중국 성숙공정 반도체(foundational chips) 지배전략과 함의」	유아름
25-10호 (2025.5.23.)	분석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현안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이재원
25-11호 (2025.6.13.)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주요국 대응 : 지경학적 파급효과와 경제안보적 함의	이재원
	현안	경제안보적 관점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분석	임산호
	연구동향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평화와 재건을 위한 부실한 기반」	황지현
25-12호 (2025.6.27.)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수출통제: 미국과 인도의 우선순위 간 긴장 완화」	안수린
25-13호 (2025.7.11.)	분석	미국 2025년 예산조정법안(OBBBA)과 경제안보 :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지원 조항을 중심으로	최용호
	현안	중동 핵심 해협(호르무즈, باب엘만데브, 수에즈 운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유아름
	연구동향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전략은 성공했는가?	임산호
25-14호 (2025.7.25.)	분석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현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연구동향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5호 (2025.8.14.)	분석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유아름
	현안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최용호
	연구동향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25-16호 (2025.8.26.)	분석	주요국 AI 정책 재편 동향 및 시사점	김수연
	현안	엔비디아 AI 칩(H20)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EU-미국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임산호
25-17호 (2025.9. 12.)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의 함의	이재원
	현안	한일·한미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황지현
	연구동향	「3자 협력(한·미·일)을 통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김단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